

# 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유입과 이탈리아의 대(對)아프리카 정책\*

김 정 하 (부산외국어대학교)  
(kimbriss@bufs.ac.kr)



## 국문요약

최근 유럽은 아프리카 난민의 유입으로 적지 않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지중해 동북부 지역의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정치적 혼란에 따른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 난민의 영향은 서유럽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다. 2015년 관련 통계에서도 보듯이, 북아프리카와 동유럽은 아프리카 난민 사태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도 이들의 국내 수용을 둘러싼 진통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난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특히 그리스와 더불어 이탈리아 반도는 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유입을 위한 관문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가장 큰 혼란에 휩싸여 있다. 이탈리아 여론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문제’라는 인식의 중심에는 인종차별주의 성향과 국내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반면 아프리카 난민들이 이탈리아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쳐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후자의 인식과 관련해 본 연구자는 이것이 국민연금의 고갈과 인구 감소에 따른 이탈리아 경제 전반의 위기에 대한 대안들 중 하나라는 이탈리아 중심적 해석보다는, 서로를 양자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간주하는 발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이탈리아 수상 마테오 렌치(Matteo Renzi)는 나이지리아, 세네갈,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2-A00021).

가나를 방문하였으며 UN연설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아프리카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렌치는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귀환’을 선언하면서 이를 국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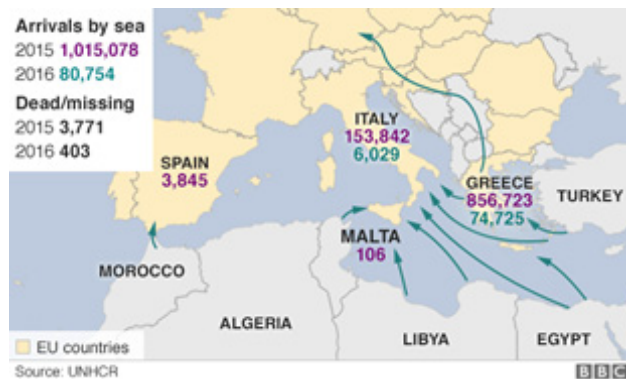
본 연구는 문제와 자원의 갈림길에서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귀환이 후자의 선택, 특히 관계 균형의 진정한 파트너로 해석될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협력이 필요함을 전제하였다.

**주제어** : 아프리카 난민, 이탈리아 이민,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유럽연합, 남유럽 지중해

## I. 서론

최근 유럽대륙을 향한 아프리카 난민(의 모험)은 그 규모와 지속성 그리고 특히 무모함에 있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구체적인 대책이나 미래도 없이 오직 생존을 위해 무작정 지중해의 높은 파고를 건너 남유럽에 도달하려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절망적인 향해가 그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 편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지중해 종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정작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아프리카 난민은 조국에서도 그리고 목적지인 유럽에서도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민족이나 종족의 이동은 항상 있었으며 그 형태도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이주, 이민 또는 난민 등 매우 다양했다. 유럽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는 기원 후 1~2세기경부터 로마제국의 국경과 영내로 밀려들어온 게르만의 이주였다. 당시 게르만의 여러 종족들은 결코 환영받지 못했으며 제국의 동북부 국경에서 크고 작은 분쟁을 야기했다. 로마제국은 무력으로 이들의 유입을 원천봉쇄하려고 했지만 제국의 대외정책이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된 후에는 이들을 용병으로 받아들이거나 국경지역



〈그림 1〉 2015/2016 동지중해를 통한 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유입

(출처: Sea Arrivals to Italy, in UNHCR)

의 영내 거주를 허용해야만 했다. 결국 게르만의 대이동은 기원 후 5세기 후반(476)에 이르러 1,000년 제국이 몰락하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점에 있어 로마제국의 몰락은 게르만과의 공존보다는 서로의 문화와 삶의 공간을 구분하려고 했던 일련의 단기처방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게르만 이동의 역사적 사례는 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유입과 일정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 사태에 대한 언론 및 학계의 분석이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는 것이 그것이다. 첫 번째 견해는 이 사태를 유럽의 입장에서 중심으로 아프리카 난민을 바라보는 인식이다. 이러한 유럽의 치우친 입장은 사실상 아프리카 난민의 유입을 현재의 문제로만 간주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상륙으로 자신들이 아프리카의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는 시각을 강하게 반영한다. 올해 들어 오스트리아 정부는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내무 장관 요하나 미클라이트너(Johanna Miki-Leitner)는 그리스를 유럽의 쉹겐 존(Schengen Zone)<sup>1)</sup>에서 일시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의 대(對)아프리카 난민 통제 및 관리를 촉구하였다(The Euro Journal 2016/01/26). 이러한 극단적 조치는 유럽시민들의 불만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인내보다는 유럽의 안정, 질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의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도 아프리카 난민사태가 유럽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The Euro Journal 2016/01/26).

또 다른 분석은 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유입이 불법적인 것이지만, 이를 유럽연합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자원화 발상의 역사적인 사례는 기원 후 7세기 이슬람의 발흥 이후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가 7~15세기의 800년간 공존했던 이베리아 반도에서 찾을 수 있다. 중세 이베리아 반도의 다문화 공존의 실험에서는 두 유일신 종교의 종교적 대립과 마찰보다는 두 문명권 사회의 공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를 통치한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Umayyad Caliphate, 661-750)는 기독교 주민들에 대한 종교적 관용정책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세금 및 행정제도를 통해 인종, 문화,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유럽-기독교 문명과 북아프리카-중동의 이슬람 문명이 교차하던 이베리아 반도의 중세 다문화 문명을 건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럽문명의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자원’의 발상은 과거 이슬람이 주도한 공존의 삶이 이제는 기독교 세계에 의해 반복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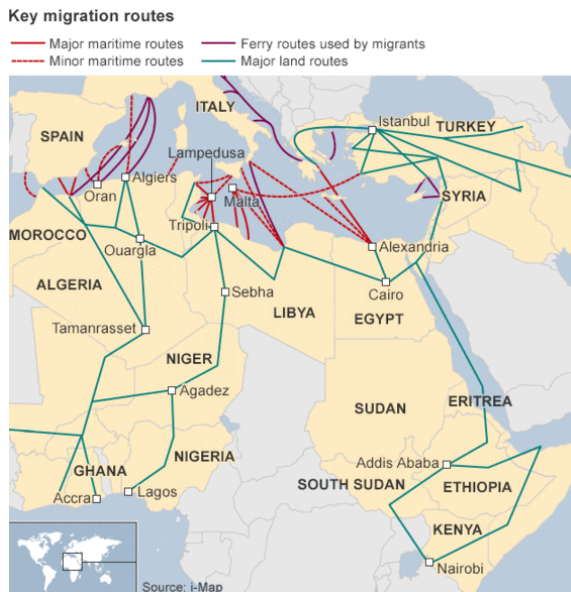
---

1) 쉹겐 지역(Schengen Zone 또는 Area)은 1985년 쉹겐 협정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26개 국가의 영토를 의미하며 회원국들의 영토 내에서는 여권 등의 신분증 검사가 생략된다.

하지만 이베리아 반도의 역사적 사례와 오늘날 유럽의 자원화 인식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전자의 사례가 이질적인 두 문명 간 균형의 공존을 위한 역사적 실험이었다면 유럽의 자원화 발상에는 유럽만을 위한 경제적 계산, 즉 아프리카 난민의 노동과 세금에 근거해 유럽의 경제적 침체를 해결한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우려를 배제할 경우, 현재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의 자원화 정책’은 문명 간 균형의 공존을 전제한 정책적 대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두 문명권이 서로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프리카 난민의 현실이 비록 겉으로는 비극적인 현대사의 한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유럽과 아프리카의 문명 간 교류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협력의 장이라는 역사인식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럼 ‘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유입에 대한 이탈리아의 입장은 무엇일까? 사실 최근의 사태에서도 보듯이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최종 목적지로서 보다는 이들이 북유럽의 국가들로 가기 위한 통로에 해당한다. 물론 이탈리아 내에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다양한 국적의 많은 외국인이 불법, 합법의 다양한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과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정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유럽연합의 국가들에게 아프리카 외국인에 대한 수용정책을 촉구한 바 있었다(Elvio Pasca 2011/05/10).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유럽 중북부지역의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통로였다는 분석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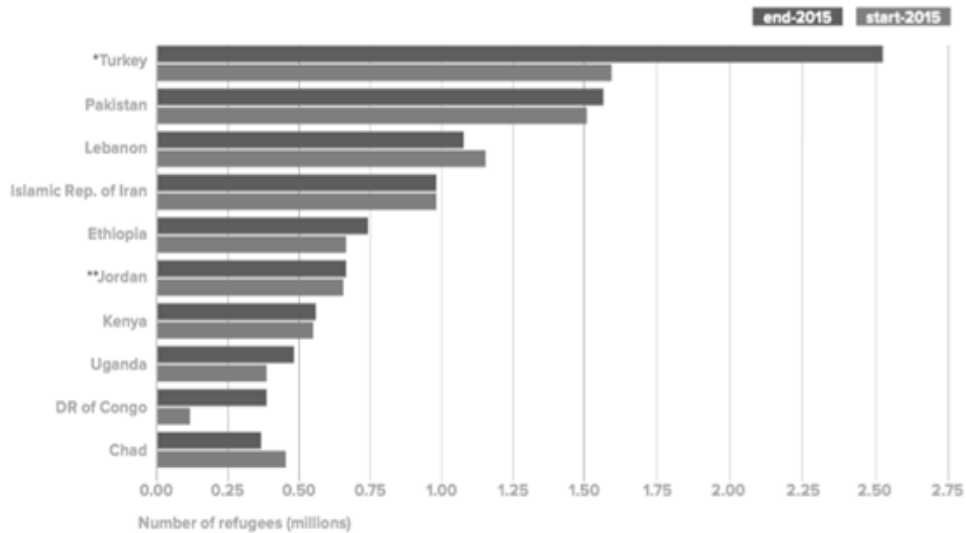
현 이탈리아 수상 마테오 렌치 (Matteo Renzi)는 지난 UN 연설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심을 호소하면서 회원국들이 동조하지 않더라도 대(對)아프리카 정책을 이탈리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유럽이 매일 같이 지중해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남유럽에 상륙하고 있는 아프리카 피난민들에 어떤 정책적 잣대로 대처할 것인가는 ‘문제로의 인식’과 ‘자원으로의 인식’ 중 하나일 것이다. 이미 7~15세기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세



〈그림 2〉 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유입경로

계와 기독교 세계가 공존한 바 있었다. 렌치의 대(對)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천명은 과거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선택이라 믿어진다.

〈표 1〉 2014-2015년 피난민의 수 및 수용국가



출처: Unhcr(2015). Global Trends 2014 Eurostat, database online

## II. 유럽의 아프리카 난민 현황

### 1. 유럽과 이탈리아에는 얼마나 많은 난민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난민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난민은 이주민의 일부 특별한 부류로서 1951년 제네바 협정 제1조에 근거해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인종, 종교, 시민권, 구체적인 사회그룹이나 그들의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 박해의 위협에 처한 모든 사람이다”(LENIUS 2016. 08. 10.).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망명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 난민위원회(Commissione Asilo)는 신청자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후에 신청자가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이유가 충분한가를 조사해 신청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할지를 결정한다.

유럽과 이탈리아에는 얼마나 많은 난민이 있을까? 실제로 대부분의 난민은 비유럽권 국가들이 수용하였다. 2015년 말, 전 세계 난민의 수는 1,610만 명인데, 이 수치는 2014년

대비 12%, 2015년 대비 37%가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위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유럽의 국가들은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10개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유럽 전체는 4,391,400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이 수치는 2014년 대비 43% 증가, 2013년 대비 158%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아프리카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이며 처음으로 아시아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표 2> 유럽 국가별 난민 수용 현황

유럽 국가들	피난민의 수	주민 1,000명 당 피난민 수
스웨덴	169,520	17.4
몰타	7,075	16.5
노르웨이	50,389	9.8
스위스	73,336	8.9
오스트리아	72,216	8.4
사이프러스	7,067	8.3
네덜란드	88,536	5.2
세르비아	35,332	5.0
덴마크	27,326	4.8
프랑스	273,126	4.1
독일	316,115	3.9
벨기에	35,314	3.1
룩셈부르크	1,332	2.4
불가리아	16,557	2.3
핀란드	12,703	2.3
영국	123,067	1.9
이탈리아	118,047	1.9
그리스	18,489	1.7

출처: Unhcr(2015). Global Trends 2014 Eurostat, database online

그럼 유럽의 주요 국가들 상황을 살펴보자(<표 2>). 유럽 국가들이 수용한 난민의 수는 우리의 예측과는 달리 상당히 적으며 크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한 난민의 수가 전체 인구 대비 1%를 초과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몰타이지만, 그 이유는 상반된다. 몰타는 상륙 지점이었던 반면 스웨덴은 많은 난민들이 희망하는 안식의 땅이자 동시에 이들의 정치적 망명을 난민 수용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이민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난민의 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은 덴마크(2014년 대비 53% 증가), 불가리아(50% 증가), 독일(46% 증가), 사이프러스(37% 증가), 오스트리아(30% 증가), 이탈리아(26% 증가), 벨기에(21% 증가), 스웨덴(19% 증가), 몰타와 스위스(17% 증가)이다.

대부분의 난민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국가인 이탈리아는 전체인구 대비 난민들의 증가에 있어 그 순위가 가장 낮다(주민 1,000명 당 1.9명). 이것은 주민 1,000명을 한 줄로 세웠을 경우 그 중에 단지 2명의 난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유럽과 이탈리아에는 얼마나 많은 난민 신청이 있는가?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 국가들에 접수된 난민 신청과 관련해 2015년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유럽은 1,255,640건의 난민신청을 접수했는데 이는 2014년에 비해 두 배에 해당한다. 아래의 유럽연합 국가들 관련 자료는 지난 2015년 어떤 국가가 난민신청을 가장 많이 접수했는가를 보여준다(〈표 3〉).

〈표 3〉 유럽연합 국가별 난민신청 건수 및 인구 1,000명당 건수

국가들	난민 신청 건수	인구 1,000명 당 난민 신청인 숫자
헝가리	174,435	17.7
스웨덴	156,110	16.0
오스트리아	85,505	10.0
핀란드	32,150	5.9
독일	441,800	5.4
룩셈부르크	2,360	4.2
몰타	1,695	3.9
덴마크	20,825	3.7
벨기에	38,990	3.5
불가리아	20,165	2.8
사이프러스	2,105	2.5
네덜란드	43,034	2.5
이탈리아	83,245	1.4
프랑스	70,570	1.0
영국	38,370	0.6

출처: Unhcr(2015), Global Trends 2014 Eurostat, database online

인구대비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접수한 국가는 헝가리이다. 하지만 이 국가는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거부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탈리아는 12번째 국가이며 인구 1,000명당 난민 신청자의 수는 1.4명이다.

이탈리아에서 2014년 대비 난민 신청은 30% 증가하였지만 헝가리(321%), 독일(155%), 스웨덴(108%), 덴마크(40%)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이것은 이탈리아가 난민들이 희망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유럽의 선진 국가들로 이주하기 위한 중간 경로의 국가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4〉는 지난 2015년 유럽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난민들의 출신 국가별 통계수치이다. 유럽의 국가들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아프리카 난민 국적 중 시리아의 경우 거의 30%에 육박하며 그 밖에 두 국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이다.

〈표 4〉 유럽연합 국가별 난민신청 건수 및 인구 1,000명당 건수

국가들	난민 신청 건수	인구 1,000명 당 난민 신청인의 숫자
시리아	362,775	146% 증가
아프가니스탄	178,230	204% 증가
이라크	121,535	83% 증가
코소보	72,465	91% 증가
알바니아	67,740	313% 증가
파키스탄	47,840	115% 증가
에리트리아	34,105	8% 감소
나이지리아	31,165	55% 증가
세르비아	30,050	3% 감소
이란	26,550	143% 증가

출처: Unhcr(2015). Global Trends 2014 Eurostat, database online

이상 10개 국가들 이외에도 난민 신청은 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기원하는데, 그 이유는 대략 2년 전부터 심각한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전쟁이나 극심한 가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국가들로부터도 난민신청은 접수되었는데, 예를 들면 알바니아, 세르비아 또는 코소보와 이란처럼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국가들이다.

난민 신청에 대해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와 같은 유럽 중북부 지역의 국가들은 주로 시리아인 난민, 이란인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로부터 난민신청을 받았다. 독일은 주로 알바니아와 코소보 주민들의 난민 신청이 몰리는 국가였던 반면



이탈리아에는 주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그리고 잠비아 주민들의 난민신청이 집중되었다.

### 3. 난민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5년에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난민들이 유럽의 지중해 해안에 상륙했다.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난민이 도착하는지, 이들이 어떤 국가들에서 출발했으며 주요 항해루트와 난민들이 원하는 주요 국가들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 2015년에 그토록 많은 난민들이 유럽에 유입된 이유는 무엇일까?

2015년 유럽을 향한 아프리카 난민의 행렬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으로는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난민들이 출발한 국가들, 둘째는 이들이 원하는 국가로 가기 위해 경유하는 국가들 그리고 셋째는 이들이 도착한 국가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1) 출발 국가의 사정

2015년 유럽에 도착한 이민자들의 주요 출신국가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였다. 그럼 이러한 국가들의 내부 사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국가의 국민들이 그토록 많이 조국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시리아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시리아는 4년 전부터 심각한 내전상태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위협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 2011년 분쟁이 발생한 이후 20만 명이 사망했으며 1,100만 명이 집을 잃었다. 이들 중에 대략 7백만 명이 아직도 시리아에 머물고 있으며 4백만 명이 고국을 떠났다. 이들 대부분은 터키(2백만 명), 레바논(1백만 명) 그리고 요르단(60만 명)에 머물고 있다. 다른 피난민들은 이집트와 이라크로 흩어졌으며 유럽을 향한 긴 여정에 동참했다. 지난 2015년부터 유럽에는 126만 명이 도착했는데 이 수치는 2015년에 유럽에 도착한 전체 수의 43%에 해당한다.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 전쟁이후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2014년에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였다. 2014년 6월의 선거를 계기로 발생한 정치적 위기는 탈레반에게 빌미를 제공했으며 이들은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다(2013년 대비 24% 증가).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은 만성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안세력들은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했고 여성들의 권리를 부정하였다. 70만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망명자의 처지에 놓여있으며 250만 명은 고향을 떠나 주로 이란과 파키스탄으로 피신하였다. 35,000명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2015년에 유럽을

향해(사실상 모두 그리스를 향해) 위험한 지중해 항해를 시작했다.

2015년의 경우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그리고 소말리아의 정세는 이전에 비해 악화되지는 않았다. 에리트리아는 20년 전부터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ewerki)의 독재하에 있다. 이사이아스는 모든 남녀에게 종신 군복무를 의무화했으며 고문과 무단 투옥을 체계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실종과 살인이 난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2002년부터, 북부지역에서 재산몰수와 살인 그리고 실질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보코 하람의 급진 이슬람 그룹의 공세에 고전하고 있다. 소말리아는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내전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슬람 세력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알-샤바브(Al-Shabab)는 방대한 영토를 통제하면서 수많은 테러행위를 주도하고 있다. 이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 중 하나로서 전 국민의 81%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2015년 유럽에는 29,000명의 에리트리아인, 15,000명의 나이지리아인 그리고 9,000명의 소말리아인이 도착했다. 이 세 국가의 주민들이 유럽에 도착한 것은 국내 문제 때문이기 보다는 현지의 옳지 못한 '인간 거래' 때문이었다.

반면 시리아인과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주로 그리스를 거쳐 발칸반도로 향했다. 에리트리아인, 나이지리아인 그리고 소말리아인 이외에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수단, 감비아, 세네갈, 가나, 말리)로부터 많은 난민이 이탈리아로 밀려들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내전으로 인한 국내사정의 불안정, 급진 이슬람 세력의 상존, 심각한 빈곤이었다.

## 2) 난민 경유 국가의 사정

난민들이 유럽을 향한 위험한 항해를 출발하는 국가들의 특별한 사정 이외에도, 유럽에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게 하는 데는 경유 국가들이 좀 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요 경유 국가는 리비아, 수단 그리고 터키인데, 이들은 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입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중간 경유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줄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입지를 이용해 유럽과 또는 유럽의 개별 국가들과 협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 즉, 국경의 개폐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 무함마르 카다피(Muammar al Gaddafi)가 사용한 바 있다. 그는 유럽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마다 국경을 개방했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다시 국경을 폐쇄하기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리비아의 전략은 오늘날 터키가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단이 아프리카 난민, 특히 에리트리아와 소말리아로부터 유럽으로 유입되는 전략적인 위치로 등장하고 있다. 하르툼(Khartoum)에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은밀하게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불법 조직들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조직들은

이민자들이 리비아를 거쳐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스카피스타(Scafista)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sup>2)</sup> 이민자들은 배를 타기 위해 한 명 당 2,000 유로를 지불한다.

최근 들어 많은 이민자들이 보다 짧은 시간에 유럽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 난민들은 수단을 출발해 불과 몇 주 만에 이탈리아 해안에 도착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해에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수단을 통과한 후에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있는 리비아를 거쳐야 했고 이곳에 몇 달 동안 머물면서 폭행과 강간 그리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일간지 Le Temps의 2015년 8월 31일(월요일) 자 기사에 따르면,<sup>3)</sup> 지난 2014년 1월과 2015년 8월 사이에 이탈리아 당국에 의해 체포된 스카피스타는 모두 880명이었다. 이들 중 이집트 국적이 279명, 튀니지 국적이 182명, 세네갈 국적이 77명, 감비아 국적이 74명, 시리아 국적이 41명, 에리트리아 국적이 41명, 모로코 국적이 29명, 나이지리아 국적인 24명, 리비아 국적이 22명이었다(L'Express 2015/08/11).

이것은 아프리카 주민들이 무릅쓰는 항해의 주변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여행기간이 짧아지고 효율적으로 바뀐 것뿐이다. 트럭을 타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행은 상당히 위험하였다. 그리고 운반책들은 잔인하였으며 자신들에게 항의를 하는 자들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으며 보다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화물칸에 가두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 3) 도착국가들의 상황

왜 그토록 많은 아프리카 난민이 유럽에 오려고 하는가? 아프리카 난민이 모험을 감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원하는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민자들은 많은 노동기회를 얻기 위해 그리고 생활하고 남은 돈을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유로 위기의 시기와 지역들에서는 이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최근 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유입은 경유지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 아프리카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도착한 국가가 거주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치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리아 난민들의 경우 독일은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2) 이탈리아어로 스카피스타는 불법이주민들을 모터가 장착된 배로 실어 나르거나 외국산 담배를 불법 거래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3) La chasse aux passeurs est ouberte. 그 이외에도 l'Express와 Italie: plus de 880 passeurs présumés arrêtés depuis 2014. 2015. 08. 11. Le Soir 참조.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시리아인들이 독일을 향해 지속적으로 죽음의 항해를 무릅쓰고 있다.

세르비아와의 국경에 건설되고 있는 장벽과 수상 오르반의 외교정책은 헝가리에 도착하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헝가리는 2015년에 많은 난민신청을 접수하였지만 실제로 이 국가는 난민들이 오스트리아와 독일로 가기 위한 경유지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부유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상당히 관대한 국가였다. 실제로 스웨덴은 시리아인, 이란인, 에리트리아인, 소말리아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온 난민들은 스웨덴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이러한 사실은 난민들이 심각한 위험을 무릅쓰고 기나긴 여행을 감행하는 이유이다.

아프리카 난민이 유럽을 고집하는 이유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만은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난민들이 희망하는 국가에 이미 살고 있는 가족이나 인척 또는 해당국가와의 폭넓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매우 깊다는 사실이다. 난민은 자신들이 절망에 빠진 극빈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들 중에는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Ⅲ. 아프리카 난민: 유럽의 문제인가 자원인가?

이민은 그 규모가 거대하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사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난민의 불법적인 유럽 유입이 유럽문명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Giovanni Martino 2016/11/06).

실제로 이민 현상은 복합적인 차원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프리카 난민의 상황은 이것이 문제이든 축복이든, 고정되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주제에 대한 모든 논의는 관련 비용과 이로 인한 득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교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난민의 상황은 이민자들, 즉 역사, 희망과 공포 그리고 허약함과 권리(와 의무), 이들의 창의성(Creativity),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폰 마음(또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 이들의 가족관계를 망라한 실제의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람들은 아프리카 난민의 규모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난민의 상황에서 단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사람들 그리고 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인류애의 차원은 무시되고 모욕을 받았으며 난민의 이주는 아무런 관리나 통제 없이 무작정 확대되기만 하였다.

## 1. 난민의 유럽 이주: 문제와 축복의 이중성

아프리카 난민과 관련해서는 이주민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고려해 정당한 대우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불법적이고 과도한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 유럽 사회에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첫째, 노동(낮은 임금, 안전, 일시적인 법적 지위)과 주택(구입가격과 임대, 거주지의 위생상황과 좁은 공간에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처하는 상황)에 있어 이민자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이민자들과의 경쟁에 의해 이탈리아 빈곤층 주민들의 노동여건과 주거현실이 악화될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체제가 대상자들의 증가로 사실상 붕괴되고 이로 인해 이탈리아 주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실업상태의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 이러한 현실은 이민자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민자들이 실현 불가능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대상은 지역주민들, 특히 이민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구역의 주민들이다.

다섯째, 범죄조직들이 이민자들의 불법이민을 부추기면서 이들을 착취할 수 있다. 이민자들이 본국에서는 시민으로 살았지만 이민으로 인해 더욱 가난해졌는데, 그 이유는 유럽으로의 불법이주를 목적으로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여행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프리카의 불법이주자들은 거짓된 환상을 부추기는 자들의 실현 불가능한 약속에 속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결과 불법이주자들은 노예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 빠져들게 되며 젊은 여성은 일자리를 약속받은 것과는 달리 매춘에 내몰리기도 하였다.

여섯째, 불법이주자들이 항해를 시작한 국가들은 경쟁력을 갖춘 인력과 조국을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들이 국외로 빠져나감으로서 더욱 빈곤해질 수 있었다. 루마니아 대사인 라즈반 루수(Razvan Rusu)에 따르면, 루마니아에서는 이미 노동력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27,000명의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곱째, 이민자 공동체 내부에서 약자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덟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분쟁이 특히 이탈리아의 극빈층과 이민자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빈자들의 전쟁).

아홉째,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서 공존과 기본법의 원칙들에 있어 드러나는 조정 불가능한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부의 세속성 원칙, 여성과 미성년의 권리, 폭력과 테러리즘의 방지에 대한 견해차이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과도한 불법 이민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이주의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따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난민과 관련해 이들이 새롭게 정착하게 될 국가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 그리고 이들과 결속력을 형성해야 할 이탈리아 주민들의 의무는 결코 저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은 나름의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

첫째, 인력이 부족한 분야들에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영역에서 창조성과 경제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가 이주자들의 새로운 이념과 문화 덕분에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민자들의 근면한 노동정신과 전형적인 희생은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국가의 문화요인들이 풍부해 질 수 있다. 다양한 문화들이 접변하면 충돌의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한 기회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 2. 아프리카 난민 관리를 위한 기본 요건들

### 1) 이민 유입의 계획화

이민은 그 자체로 권리가 아니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sup>4)</sup> 그럼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며 인간적 연대책임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무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한계 내에서, 이들에게 제공된 도움이 인간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차원에서(단순히 “와서 스스로 알아서 하라!” 라는 식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유지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이민자들과 이들의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일자리를 제공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있어 이탈리아에게는 이민자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계획하고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

4) 예를 들어 아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없는 부모에게 이들을 외국에서 유학을 시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억지이다.

것이 중요하다.<sup>5)</sup>

## 2) 아프리카 난민을 이탈리아 사회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난민들 대부분은 새로운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한다. 따라서 이들을 수용한 국가의 사회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권리와 의무의 상호연관성을 조성해야 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민자들이 국가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법, 특히 여성과 미성년에 대한 기본법이 지켜지지 않는 특별지역이나 이민자 구역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이민자들이 이탈리아 국내법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의 헌법이 영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인권과 존엄성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효과를 동반할 것이다(거주의 자유, 개인의 자유, 표현과 종교의 자유, 법적 보호, 미성년 교육). 여기에는 자신의 노동과 관련한 권리, 세금납부와 관련한 경제적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이주자 그룹 모두가 공통의 규정을 존중할 능력을 갖춘 후에는 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즉 헌법이 시민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권리, 집회의 권리, 특정 정당을 지지할 정치적 권리, 선거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도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관련 의무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은 경제법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는 공동의 가치에 대한 표현인 사회적 공존의 규칙을 가진다. 공동체는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인정함으로써 활성화되는 연대책임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아프리카 난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고방식과 문화에도 적응해야 하며 이민 국가 헌법의 기본 가치를 공유할 경우에는 더 이상 이민자는 없고 충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들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탈리아는 적어도 마테오 렌치의 말에 따르면, 주인과 손님의 공존이 충분한 통합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이탈리아 좌파, 특히 좌파 정치인인 바르바라 폴라스트리니(Barbara Pollastrini<sup>6)</sup>)가 확신하는 예상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언급된 통합을 위한 이민자 관리의 기준은 너무 엄격하거나 정언적인 것처럼

---

5) 반면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다면 국경에서 아프리카 일부 이주민들의 입국을 차단하거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동반해야 한다.

6) 이탈리아 브레시아(Brescia) 주 출신의 여성정치인으로 이탈리아 공산당의 밀라노 지부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일 수 있다. 이를 좀 더 분석해 보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관심, 편견, 경제적 필요성, 정치적 이념, 특히 이러한 이민자 통합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왜 이민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왜 단순히 이민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3. 아프리카 난민이 국가를 위한 자원이라는 견해와 반박

#### 1) 기업들의 노동력 수요

그럼 이번에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기업의 노동력 수요이다.

아프리카 이주민의 유입에 적극 찬성하는 지지층에는 많은 기업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탈리아인들이 외면하는 일자리를 대체할 노동력을 원하고 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얼마 전부터 이탈리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복지가 개선되면서 덜 선호하는 직종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상당히 힘들고 위험성이 높은 활동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전문화되지 못한 노동자, 농업노동자, 경비직종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이탈리아에서 과거보다 학업에 더욱 매진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학업과정이 한층 쉬워지고 전문과정의 기회가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학위 취득자들의 비율은 안정적이다.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별다른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은 일자리를 선호한다. 모두 힘든 일을 피하고 위험성이 없고 대우가 좋은 직업만을 찾으면서 사무직을 원하고 있다.

노동임금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상당한 아이러니가 존재하는데, 특히 제조업 분야가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노동비용은 물품 최종가격의 20-30%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이윤, 연구, 기계비용 그리고 변환과정비용, 에너지 비용, 광고 그리고 특히 유통비용(운송,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의 이윤)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경쟁력은 안전장치의 생략이나 낮은 봉급이 아니라 혁신과 품질, 세금 감면, 행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지원에 근거해야 한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봉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편이며 경쟁력도 그만큼 낮은 것이 사실이다.

적은 임금에 안전문제가 심각한 일자리 노동은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고 이탈리아 서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임금의 노동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낮은 급여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실을 고려해 보자. 이민자들은 힘든 일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이들의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는 이미 이탈리아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비전문적인 노동자, 수공업자, 무역종사자, 택시운전수(회사나 조합에 가입된 자들) 등이 그러하며 향후에는 공학자, 수학자, 화학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기 보다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민자들이 부차적인 수준으로 전략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이러한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상당히 낮추게 될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 노동시장이 소비를 장려하고 경제를 자극하는 높은 임금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주의-기업가들의 근시안적인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국민연금의 정상화와 아프리카 난민을 이용한다는 견해

이탈리아의 연금개혁은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금제도가 노동자들이 납입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연금을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속임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데, 인구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이미 자본주의화된 시스템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수혜할 연금을 위한 연금납입금이외에도 더 오래 동안 납입해야 한다(즉 자신이 수혜할 연금보다 더 많이 납입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 서비스(국민건강보험 등)를 위해서도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인구노령화와 국민수명 연장이 한층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이민 촉진 정책, 즉 이주민 노동자들의 납세로 연금지급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과 연계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미 많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불법노동을 하고 있으며 정규노동자들은 보상에 비해 더 많은 납입금만을 납입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연금가입자로 인정하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다. 젊은 이민 노동자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도달할 경우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것이 분명하며 이탈리아 노령인구를 유지하는데 자신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사실상, 그 전망에 있어 인구의 빠른 증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 3) 이민자들의 정치세력화와 극좌익세력의 정치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오직 착취에 의해서만 유지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근대 이후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이탈리아 정치에서는 이러한 이념에 고무된 공산주의자들도 없지 않다. 어떤 정치인은 자본주의의 내적인 반목이 모두 풀아터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이민자들을 국내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심각한 사회적 분쟁을 야기하는 것 없이 국내 경제에 수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체제의 위기가 동반될 것이 자명하다. 만약 자본주의가 스스로 몰락하지 않는다면 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과격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이민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게 될 불행한 환경은 회복 불능의 역사적인 몰락을 우려하고 있는 정당들에게는 선거에서 새로운 표밭이 되어줄 것이다. 누군가는 아프리카 난민의 문제가 글로벌화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단골 주제라고 생각한다.

국내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존재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존재하는 부패현상이지만 시장경제에 있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자유경제의 발전은 복지의 성장과 확산에 기여하였다. 후진국가의 저개발 상황은 이민현상의 원인일 뿐 부유한 국가들이 그 원인은 아니다.

게다가 과거 유럽은 자신들의 대륙에 유입된 이민자들을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단지 이들을 혁명의 수단으로 간주하였을 뿐이다. 가장 허약한 사회계층들이 서로 충돌하여 불꽃을 더욱 크게 키웠을 뿐이라는 냉소주의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 4) 유토피아적 이념과 허상

일각에서는 복지와 행복을 모두가 공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발상에 따르면 물질적 발전, 문화적 성장, 평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죄의식도 동반되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들은 전 세계의 빈곤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과 바람은 도덕적인 덕목일 뿐이다. 실제로 유토피아와 현실감각의 부족은 오히려 위험성을 다분히 포함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탈리아인들은 많은 외국인 이민자를 그것도 신속하고 대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의 부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민자들의 빈곤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경제이민은 그 일부밖에는 기아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아에 허덕이는 자들은 여행비로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중해를 남에서 북으로 향해하는데 2,000~3,000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며, 더구나 리비아의 해안까지 도달하는데도 그 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아프리카 난민에게 5,000~6,000달러는 아프리카에 기준할 때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얻기 힘든 금액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민자들은 소부르주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은 절망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자신들을 유럽으로 운반해주는 자들이 말하는 밝은 미래에 대한 달콤한 선전에 속은 것이다.

만약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대의식을 형성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 그 이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개입도 상당히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이 극빈의 국가인 경우 지역의 부패 세력들에 의해 좌절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도 각오해야 한다.

#### 5) 다문화주의: 물과 기름의 공존

이민자들의 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견해와 이들을 이탈리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공존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통합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조치들을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탈리아의 다문화주의자들은 이와 관련해 이민자들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잘못하면 형식적인 통합, 즉 물과 기름의 공존으로 끝날지도 모르며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공존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환상이며 이민자들의 사회 정착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6) 도덕주의적 판단의 명암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으로는 도덕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제기하는 이슈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추진하기 보다는 토론의 수준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대부분의 경우 설득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Domenico Martino 2007/11/19).

하지만 도덕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 정직한 이민자들의 노동이 이탈리아 사회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이민이 동반하게 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종차별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인종들이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인류적 가치를 추상적인 용어로 정의할 뿐 문제를 분석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답을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정직한 이민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와 지성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거나 범죄 이민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이탈리아 사회의 범죄율을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악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주의자들은 조치들에 대해 언급은 하겠지만 결코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 사회를 위한다는 도덕적 명분이 궁극적으로는 심각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7) 운명론자들: 이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민을 국가 경제를 위한 자원으로 간주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시대적이고 멈출 수 없는 현상으로 제도적인 장벽을 높이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서양은 요새 속에 안주할 수 없다. 이민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던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암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통제가 불가능한 이민현상이 그 자체로 동반하는 인간 드라마를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문제는 역사를 멈추거나 이민 현상을 차단하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어느 나라도 무분별하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민을 받아들여 성립된 국가이다. 미국은 엘리스 섬(Ellis Island), 즉 허드슨 강의 포구에 위치한 작은 섬을 이용해 이민자들의 수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민자들의 유입을 계획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연간 최대인원, 직업별 이민, 출신국가별 이민 허용 등이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화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수용 자격에 미달되는 이민자들을 국경에서부터 차단하여 이들의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절망상태에 있는 이민자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일까?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이민자들의 유입이 절망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도록 부추겨진 자들에 의해 시발되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도 모든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필요에 의한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직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유럽으로의 모험을 시작한 자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인데 너그러운 국가를 선택하려고 한다.

이민을 부추기는 주체는 국제범죄조직으로, 이들은 사하라 남부의 국가들로부터 여정을 시작하면서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러한 조직들은 불법이민 비즈니스를 통해 테러조직에게도 자금을 지원한다.

실제로 오늘날의 이민은 그 대부분이 전쟁이나 박해와 무관하지 않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에 따르면, 실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친 이민자들은 소수이며 이들은 시리아와 에리트리아에서 온 자들이라고 한다. 다른 이민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유럽행을 감행했으

며 사하라 남부 국가들의 국제범죄조직에 의해 부추겨진 ‘박스에 넣어진 채 여행하는 자들’이다.

그 이외에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유럽국가들의 경제그룹이나 정치인들도 불법적인 유럽 이민을 부추기는 요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익사할 위험에 처한 이민자들은 구하지 않는다. 이탈리아는 배를 운전하는 자들이 보유한 위성전화의 국제번호를 추적하면서 리비아 해안지역까지 진출해 이민자들을 넘겨받는다. 보트를 운전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배가 이탈리아 해안에 도착할 수 없는 물리적인 상태에 있지 못한 것을 잘 알면서도 어느 정도 항해를 한 후에 국제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다.

실제로 이민자 관리는 거대한 사업이 되고 있으며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이익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민자들이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들에게 비싼 값에 세를 주고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는데 급급하다. 또한 이탈리아 지역 마피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다.

#### 4. “이민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는 자들

현재는 이민자들의 유입에 우호적이거나 이러한 현상의 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견해가 우세하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들이 이탈리아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이민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인의 일자리에 대한 걱정은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이될 수 없으며 새로운 일자리의 필요성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경쟁은 이탈리아인이 안전한 일자리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과 자신의 직업능력 개발에 노력하게 하는데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인과 이민자들의 일자리 경쟁이 수용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이민자들이 사회보장기금을 축내고 있다?

이탈리아에 거주하면서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외국인들에게 사회보장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외국인의 국내 노동에 적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연금수혜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으로 자신들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은 1인 가구로 살기보다는 부모와 형제 등 친척들과 함께 거주한다. 실제로 사회보장의 혜택을 위한 자원은 무한하지 않은데, 이러한 현실은 외국인 이민자들과 이탈리아 노동자들 간의 불편한 관계와 편견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이탈리아에서 누리는 사회보장의 혜택이 자신들의 출신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틀림없다.

### 3)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인의 나라이다?

지난 18~19세기 이후 서양은 정치에 우선하는 경제적 논리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문명을 이룩하였다. 오늘날은 이를 계승한 제4차 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유럽사회의 일각에서는 유럽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역사적인 업보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토로되고 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문화의 빈곤이 극단의 대조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물질적 부의 독점에 집착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주장을 지적문화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한편, 외국인 이민자들은 새로운 이탈리아인이다. 역사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들을 수용한 국가의 문화에 적응하고 사회에 통합될 때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문명은 '다름'을 인정하고 이질적인 가치들이 공유될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 4) 외국인 공포증

인종차별주의자, 외국인 혐오주의자(외국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용어는 반인종차별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행동을 자극하는 주된 요인이다. 두 용어는 도덕주의자들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자들의 입을 막는데 주로 활용하는 무기에 해당한다.

분명한 것은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주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각 개인의 신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문화적인 질병이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특수한 맥락에서 등장한다.

다른 인종들 또는 인종그룹들에 비해 유전학적인 열등함이 존재한다는 인종차별주의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방대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증오는 상당히 어리석은 것인 만큼 이를 예방하는 데는 신중하고 치밀한 경계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혐오주의, 즉 언어, 문화, 종교 등의 영역에서 외국인에 대해 드러내는 무관심 또는 다르다는 인식은 상당히 쉽게 확산되는 경향을 가진다. 예를 들면 프랑스인은 지저분하고 멧진 것에만 열광한다는 편견이 그것이다. 하지만, 모든 이탈리아인이 눈치가 빠르고

마피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프랑스인이 그런 것은 아니다. 각 개인에게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슬람 세계의 경우, 모든 이슬람 신도들은 모든 프랑스인이 친절하고 예의바르지 않은 것처럼, 근본주의를 신봉한 다거나 폭력적이지 않다. 이슬람 사원에서는 법이 존중되기 때문에 증오가 확산될 수 없으며 가미카제의 무모한 행동에 열광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론을 모든 이슬람 신도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다른 인종,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일반화는 이해 가능한 단순화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모든 개인의 권리와 권위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름에 대한 공포는 특히 사회적 위기가 팽배한 분위기에서 희생제물을 찾으려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외국인을 국가의 모든 악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발상이며 비인간적인 처사일 뿐이다. 정직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사회에 통합될 의향이 있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실은 이탈리아가 이러한 외국인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회노동력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 문화적 기여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물론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배부른 채 절망감으로 살아가는 이탈리아인들의 범죄를 분석하고 이탈리아의 도시들에 확산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무관심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민자들의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이탈리아의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 5) 성매매 수요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성매매와 관련해 새롭고 젊은 여성, 심지어 어린 소녀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낮은 가격으로 모든 유형의 성 서비스를 강요받게 될 것이 분명한데, 이 경우 외국인 여성들은 국제성매매 시장과 연계되어 사실상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이민 여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거나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다. 결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히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는다. 정치권도 강력한 조치를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다.

## IV. 유럽-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새로운 역사인식의 필요성

이탈리아의 여론은 아프리카 난민이 유럽연합과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분된 입장을 드러낸다. 두 견해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탈리아의 불안정한 정치 지평과 맞물리면서, 마테오 렌치 정부의 대(對) 아프리카 이민자 정책 수립과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프리카 난민 현상에 대한 문제적 인식은 유럽의 배타적인 외교노선을 반영한다. 기회라는 인식 역시 유럽을 위한 가능성이며 과거 지중해-유럽의 역사파트너였던 아프리카 북부와 오리엔트 지역의 문명권과 어깨를 함께하는 자세로는 보기 힘들다.

‘문제’와 ‘기회’의 역사 공식은 유럽의 편파적인 시각이며 과거 19세기의 역사연구전통과 유럽중심주의적인 역사연구방법론에서 기원한다. 근대사 이후 물질문명의 발전과 문화적 지배력을 이끌었던 유럽문명은 현대의 삶에 있어서도 공존의 이론을 서구적 정의(正義)의 명분으로 고집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공존의 실마리는 관계들의 조화와 균형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입장은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럼 유럽의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은 어떤 새로운 역사인식에서 출발해야 할까?

보다 근원적으로는 19세기 유럽중심주의적인 역사철학을 대신해 상통의 원리를 중심으로 유행(流行)과 대대(待對)의 관계구도를 도입해야 한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비극적인 현실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는 난민의 관계는 이들을 서로의 미래적 발전에 필요한 문명적 파트너로 설정할 때 개선될 수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 난민을 문제로 간주하거나 자신들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의 의미에서 기회로 간주한 두 가지 전제는 공존과는 거리가 있다. 후자의 기회로 보는 시각은 자국에 정착한 아프리카 난민들의 힘든 노동과 저렴한 임금에 근거한 것일 뿐, 결코 17~18세기 유럽에서 태동한 인간 존엄성과 천부인권의 의미와는 논점이 다르다.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제안된 ‘유행과 대대의 관계설정’은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정책적 과제이며 그 힘든 여정에서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에서 마주하게 될 두려움이 예상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유럽연합 경제의 높은 벽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프리카 난민들은 정치인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안목은 물론, 낯선 이웃의 노골적인 편견과 시선도 극복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근시안적인 논리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다름을 우열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아프리카 난민의 상황을 문명 간 교류의 시각에서 풀어내려고 한다면 분명한 차이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이에 대한 확신과 결단이 필요하다.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아프리카 난민의 대부분이 이슬람 신자들이라는 사실도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이다. 오늘날의 지역학 구도에 따르면 지중해는 지난 7세기 이후 서유럽기독교 세계와 아프리카 이슬람 세계가 끝없이 대립하던 바다로서 종교와 이념, 정치와 군사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끝없이 반복되던 성전의 전쟁터였다. 적어도 지금까지 유럽연합과 그 주요 회원국들이 견지하는 입장은 이러한 반목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장은, 유럽이 자신의 오랜 적대세력, 그것도 난민들 속에 숨어든 테러분자들과 얼마 전 파리 테러를 자행했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확신하는 일단의 무리를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sup>7)</sup> 그럼에도 과거의 역사를 돌아 볼 때 기독교 유럽이 보여주었던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에는 근대 물질문명의 일방적인 질주에 대한 반성과 공정하지 못했던 19세기 역사해석에 대한 제고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유럽이 이러한 오랜 편견에 근거해 자신들의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당장의 해결은 모색하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채 보다 극단적인 결정으로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반면 서로의 입장을 필요한 관계의 새로운 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면 느리지만 견고한 공존의 기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이용승 2016, 9).

결론적으로 난민 수용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전혀 인위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과도하게 또는 무대책적인 이민자 수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는 계획적 수용이어야 한다.

유럽의 대(對)아프리카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경제적 투기나 정치적 계산이 개입되는 단기성 투자보다는 아프리카 경제의 자생력을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유럽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설득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두 문명권 간의 교류와 접변을 위한 유럽-아프리카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문화를 경제논리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 문화교류에 있어 결실을 맺는 데는 궁극적으로 행사의 규모보다는 제도화를 통한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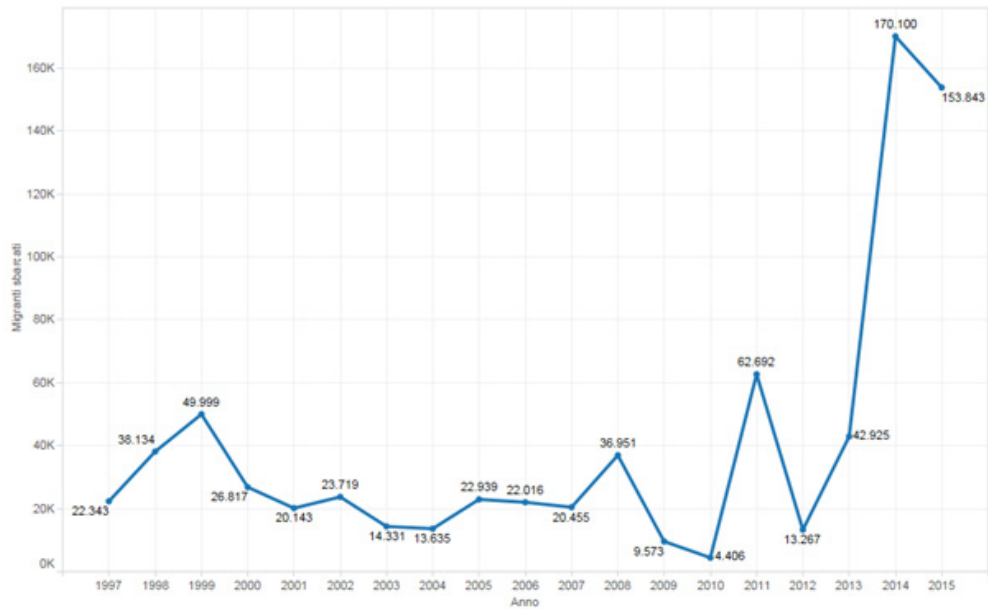
7) 파리에테러 공격은 불법적인 이민자 유입이 테러분자들의 유럽연합 입국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Frontex가 말했다. 파리에테러를 주도했던 테러분자들 중에 2명은 과거 그리스 국경을 통과할 때 조작된 시리아 문서를 제시했던 사례가 있다. 출처: [http://www.repubblica.it/cronaca/2016/04/06/news/migranti\\_frontex\\_nel\\_2015\\_record\\_passaggi\\_illegali-137017152/?ref=search](http://www.repubblica.it/cronaca/2016/04/06/news/migranti_frontex_nel_2015_record_passaggi_illegali-137017152/?ref=search) (검색일: 2016.10.02.).

## V.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난민 현황과 대(對)아프리카 정책

### 1. 아프리카 난민과 이탈리아의 대(對)아프리카 정책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수상이 얼마 전 유엔 연설에서 밝힌 대(對)아프리카 정책의 근본 배경들 중에는 2011년 이후 급감하던 불법이민자들의 수가 2012년을 지나면서 가파르게 증가한데 이어 지난 해(2015)에도 그 수치가 고공행진을 기록한 사실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 참조). 2015년 상반기의 경우 이들 중 바다를 통해 이탈리아에 들어온 이민자 수는 67,000명에 이른다(UNHCR: The UN Refugee Agency)<sup>8)</sup>.

〈그림 3〉 1997~2015년 이탈리아에 입국한 이민자 수



출처: ISMU(Iniziative e studi sulla multiethnicità)

8) 유럽의회의 의원인 세실 키엔지(Cecile Kyenge)는 지난 2월 8일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에 기고한 글(이탈리아, 아프리카로 돌아오다)에서 유럽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탈리아 수상 마테오 렌치가 아프리카 대륙을 이탈리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선언한 것이 산발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표 5>에서 보듯이 북아프리카 난민의 대부분이 도착하는 이탈리아 남단 람페두사(Lampedusa) 섬의 경우 2015년 초반부터 38차례에 걸쳐 4,825명의 외국인이 상륙하였는데 이 중 남자는 3,878명, 여자는 410명, 어린아이는 537명이었다.

### <표 5> 지중해를 통한 이탈리아 입국 아프리카 주민 수

2015년 1월~4월 28일 사이에 208회에 걸쳐 26,223명의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이탈리아에 상륙

지역	2012	2013	2014	2014 (to 28/04)	2015 (to 28/04)
시칠리아	8,488	37,886	120,239	24,985	20,856
폴리아	2,719	1,030	17,565	107	1,164
칼라브리아	2,056	3,980	22,673	550	3,255
사르데냐	4	29	166	4	82
캄파니아	-	-	9,351	-	866
리구리아	-	-	106	-	-
합계	13,267	42,925	170,100	25,646	26,223
시칠리아 람페두사, 리노사Linosa, 람피오네Lampione	5,202	14,753	4,194	785	4,825
아그리젠토	551	2,937	15,366	3,270	3,030
시칠리아의 다른 지역들	2,735	20,196	100,679	20,930	13,001

출처: ISMU. 'Sbarchi dal 1 gennaio al 28 aprile 2015' 참조

## 2. 마테오 렌치 정부의 아프리카 정책

### 1) 지금이 이탈리아-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적기

마테오 렌치는 금년 2월 1~3일 나이지리아, 가나 그리고 세네갈 방문을 계기로 아프리카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탈리아 언론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했다.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외교정책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이탈리아 외교정책의 기조 변화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이탈리아가 아프리카로 돌아온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마테오 렌치는 아프리카 대륙을 이탈리아 외교정책의 최우선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탈리아 수상의 이러한 선언과 이탈리아 외교정책이 아프리카를 새롭게 평가, 즉 새로운 외교전선으로 간주한 이유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대한 이탈리아의 관심 전환을 의미한다(Cecile Kyenge 2016/02/08)<sup>9)</sup>.

## 2) 북아프리카 난민은 이탈리아 국내경제를 위한 기회

이슬람 국가들의 위협과 아프리카 이민의 위급한 상황은 이탈리아와 아프리카의 물리적인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대륙의 도전은 IS의 위협으로 그리고 빈곤과 전쟁을 피해 아프리카를 탈출하는 행렬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아프리카는 이탈리아 경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대륙이기도 하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작년(2015년) 아프리카개발은행(Banca Africana di Sviluppo)과 OECD가 채택한 아프리카 경제 전망(African Economic Outlook)의 평가에 따르면, 2016년 아프리카는 2.5~5%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치는 유럽에게는 꿈같은 것이나 다름없었다(Cecile Kyenge 2016/02/08).

## 3) 지금까지 이탈리아 대(對) 아프리카 투자는 극미했다.

중국, 인도, 브라질, 카타르,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은 국제시장의 마지막 개척지로 간주되는 검은 대륙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아프리카 시장, 특히 에너지 시장에 이탈리아의 투자가 오래 동안 부재했던 것은 아프리카-이탈리아 모두에게 기회의 상실이나 다름없었다.

이탈리아의 투자는 자국민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아프리카인들에게도 많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테러와 인신매매를 부추겼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아프리카 이민이 그 첫 번째 희생대상일 것이다)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Cecile Kyenge 2016/02/08).

## 4) 최우선 과제

테러와의 전쟁, 이민, 인간 발전, 민주주의와 투자는 이탈리아가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할 상황에서 추진할 아프리카 정책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렌치가 방문한 세 국가(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는 이러한 도전과 관련이 깊다(POST ITALIA. Il Viaggio di Renzi in Africa 2016/02/03).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나이지리아에서는 테러집단인 보코-하람이 5천명을 학살하고 수많은 젊은이를 인간 폭탄으로 만들었다. 또한 빈곤, 노동과 교육의 결여는 아프리카

---

9) 유럽의회의 의원인 세실 키엔지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일간지들 중 하나인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에서 이탈리아가 대(對) 아프리카 외교를 최우선적인 외교정책으로 설정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이탈리아의 수상 마테오 렌치의 결정이 산발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젊은이들을 지하드에 참여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들이었으며 이들이 자신의 땅을 떠나 유럽으로 오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보코 하람의 국가가 아니며 석유자원만을 가진 국가도 아니다(Cecile Kyenge 2016/02/08).

### 5) 아프리카는 거대한 경제권

오늘날 거대한 아프리카는 무한한 가능성의 사회이자 상상 그 이상의 다양화된 경제적 실체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발전은행(Banca Africana di Sviluppo)의 새로운 의장은 아프리카에서 선출되었다. 이탈리아는 이 조직에 8번째로 많은 기금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발이 진흙에 빠진 거인으로 부패와 독재로 고통을 받고 있다. 렌치가 방문한 가나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채택한 민주체제 덕분에 새로운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다. 세네갈은 민주정치를 확립하였다. 그럼에도 빈곤은 상당히 폭넓게 확산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세네갈 시민들의 국외탈출이 지속되고 있고 사헬(Sahel)<sup>10)</sup>의 테러그룹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Cecile Kyenge 2016/02/08).

### 6)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부패지수와 이탈리아의 對 아프리카 정책

부패지수(0에 가까울수록 부패의 정도가 높고 100에 가까우면 그만큼 부패의 정도가 낮음)에 기준할 때 168개국 국가들 중 덴마크는 91점으로 부패의 정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선정되었다. 반면 부패의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소말리아로 부패지수는 1.1이다. 아프리카 국가들 경우, 사하라 사막 남부 국가들의 평균 부패지수는 33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20개 국가들의 절반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국제투명도 평가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주민 7,500만이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심각한 부패는 유럽의 아프리카 경제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걸림돌이며, 깊은 대륙의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과 테러의 확대 역시 유럽의 선제적 대(對) 아프리카 정책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망설임은 이탈리아의 경우 보다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이탈리아 수상 마테오 렌치의 친 아프리카 외교정책이 자리한다(Cecile Kyenge 2016/02/08).

마테오 렌치는 뉴욕의 유엔 연설에서 “만약 유럽이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난민과 관련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10) 사하라 사막 남부의 접이 지대인 사헬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테러조직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렌치의 연설은 사실상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언급된 유일한 새로움이었다.

실제로 이 회의에서는 수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아프리카의 주제와 관련해 그 어떤 사실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았다. 이는 과도하게 완곡한 어법을 사용한 것이다. 렌치 수상은 이 회의의 출구에서 수많은 멋진 말들이 오갔지만 팩트(facts)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탈리아는 단독으로라도 행동을 취할 것이며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후 계속해서 테러와의 투쟁에도 국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였다(Cecile Kyenge 2016/02/08).

## VI. 결론

아프리카 난민의 상황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문제라는 인식에 기운다면, 이는 지난 18~19세기 유럽역사학 전통이 성립시킨 유럽중심주의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아프리카 난민을 유럽을 위한 자원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과거 한 때 유럽이 암흑의 시대(Dark Age)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규정했던 중세(5~15)에 기독교 유럽과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경험했던 진정한 공존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는 궁극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여정이다. 오늘날의 아프리카 난민은 오랜 시공(時空)의 여정에 있어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과거사의 DNA를 통해 최선의 균형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려가 없지는 않다. 최근 프랑스 칼레(Calais) 시의 아프리카 난민 캠프를 철거하고 난민들을 프랑스 전역의 300여개 난민 캠프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디아스포라통신 2016/10/26). 중세시대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유대인들을 게토(ghetto)로 보낸 것을 연상시킨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이 지난 19세기 이후 지중해를 매개한 두 대륙의 불편한 역사적 교차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이탈리아 수상 마테오 렌치는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방문을 계기로 유럽-아프리카의 해묵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의 장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면서 대(對) 아프리카 외교를 자국의 최우선적인 외교정책으로 발표하였다. 렌치의 결정은 유럽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유럽과 아프리카가 지중해를 경계로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유럽문명의 고-중세적

배경인 지중해 문명의 형성은 이 바다의 지리적인 환경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차원에서 가능했었다. 지금도 지중해를 유럽의 바다로 고집하는 것은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유입은 외관상으로는 유럽에게 던져진 운명의 난제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기회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예상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프리카를 유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만이 인스턴트의 효과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 이용승. 2016.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의 기능. 민족연구 65, 4-25.
- EKNews. The Euro Journal 2016. 01. 26.
- Fabio Colombo. Quanti sono i rifugiati in Italia e in Europa?. LENIUS. 2016. 08. 10.
- La chasse aux passeurs est ouberte. Le Temps. 2015. 08. 31.
- l'Express. 2015. 08. 11.
- Italie: plus de 880 passeurs présumés arrêtés depuis. Le Soir. 2015. 08. 11.
- Elvio Pasca, Sugli immigrati Berlusconi sbaglia i conti. 2011. 05. 10.  
출처: <http://www.stranieriinitalia.it/statistiche/attualita/statistiche/sugli-immigrati-berlusconi-sbaglia-i-conti.html> (검색일: 2016. 11. 09.).
- UNHCR: The UN Refugee Agency [www.unhcr.it/](http://www.unhcr.it/)
- ISMU(Iniziativa e studi sulla multiethnicità),  
출처: [www.ismu.org/irregolari-e-sbarchi-presenze/](http://www.ismu.org/irregolari-e-sbarchi-presenze/) (검색일: 2016. 10. 27.).
- Giovanni Martino. Immigrazione: problema o risorsa? Come gestire un fenomeno complesso. Europaoggi. 출처: <http://www.europaoggi.it/content/view/1305/28/> (검색일: 2016. 10. 27.).
- Cecile Kyenge. È tempo dio Summit tra Italia e Africa. La Repubblica. 2016. 02. 08. 출처: <http://www.repubblica.it/solidarieta/emergenza/2016/02/08/news/kyenge-132961371/> (검색일: 2016. 10. 20.).
- Domenico Martino. Fatti, non parole Stampa, Combattere la criminalità ‘importata’ per riavere sicurezza e combattere il razzismo. Europaoggi. 2007. 11. 19.  
출처: <http://www.europaoggi.it/content/view/1303//> (검색일: 2016. 10. 19.).
- 프랑스 북부 칼레 난민촌 철거 강행. 디아스포라뉴스통신. 2016. 10. 26.  
출처: <http://diasporanews.kr/377> (검색일: 2016. 10. 29.).
- POST ITALIA. 출처: <http://www.ilpost.it/2016/02/03/viaggio-renzi-africa/> (검색일: 2016. 10. 29.).
- Sbarchi anno 2014. ISMU.
- Statistiche immigrazione, Ministero dell’Interno.
- Sea Arrivals to Italy. UNHCR.

● 투고일: 2016.11. 7.    ● 심사일: 2016.11. 9.    ● 게재확정일: 2016.11.19.



## **Influx of African refugees in Europe and Italy's African policy**

Kim, Jungha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Europe is facing chaos because of African refugees. Especially, the countries of the Mediterranean Northeast is being exposed to a direct effect of political turmoil of African Continent.

In reality, African refugees do not only influence Western Europe. As seen in the related statistics of 2015, North Africa and Eastern Europe are largely influenced by African refugee situations. Western European nations are also suffering surrounding acceptance of African refugees.

Italy has never been free in refugee situations. Italian peninsula and the Greece are gateway for the European influx of African refugees. In fact, Italian public opinion shows two contrasting views about African migrants. The racism and the prejudice are situated at the center of problem which regard African refugee, who take jobs from Italian labors.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t perspective exists that African refugees could be resources for the Italian economy and society.

Regarding the latter's recognition, I argue that thi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the solution for the Italian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depletion of national pension and a decrease in population. This is nothing but a Italian-centric interpretation. While African migrants and Italy must be partners for each other's development. In the last February, Italian Prime Minister, Matteo Renzi visited three African countries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the Republic of Senegal, the Republic of Ghana, respectively) and in a speech at the UN General Assembly he indicated a need that EU member countries should b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African Continent. Renzi's speech emphasized 'the Return of Italy in Africa'.

This study notices that with regard to the subject of 'problem' and 'resource', Italian return to Africa should be interpreted as an effort to seek the real partnership with African countries in Italy's African Policy.

**<Key words>** African refugees, immigration in Italy, Mateo Renzi, European Union, Southern Europe, National Pension